

# Style 조선일보

SPRING  
2021

**LONGINES®**  


지름 42mm의 스틸 케이스에 메탈 블랙 다이얼을 더한  
롱진스피릿 4백 4백 05만 원. 사진: 차태현 by 무이.





**론진 스피릿**  
 론진 스피릿 컬렉션은 유명한 개작자들이 육·해·공을 장악할 때 의지했던 론진 타임피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케이스 지름 42mm로 선데이 블루 다이얼에는 슈퍼 루미노바 처리된 아라비아숫자 이워 마크와 살버 샌드 핸즈를 매차했다. 칼리버 L888.4를 장착했으며 64시간의 파워 리저브, 10bar 방수가 가능하다. 3백만원 론진.

**론진 스피릿 프레스티지 에디션**  
 새로운 세대에게 자신의 안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도전 정신을 담은 시계. 지름 40mm인 스틸 케이스에 실버 다이얼, 슈퍼 루미노바 코팅된 핸즈와 인덱스를 매차했다. 시, 분, 초 및 날짜 확인이 가능하고 L888.4 칼리버로 구동하며, 64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0bar 방수가 가능하다. 두 가지 스트랩을 추가로 제공하며, 독창적인 인터체인저를 시스템에 갖춰 착용자가 별도의 톨 없이 손쉽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다. 3백70만원 론진.



# The Best Moment

열정과 여유, 도전과 휴식, 그리고 채움과 비움의 균형을 맞출 줄 아는 배우 정우성과 함께한 시간 여행.  
 photographed by kang in ki

싱크 로프트 빌딩 거대 촬영 by 10 프로덕션, 코오, 리넨 하우스, 샵하우스, 쉐어하우스.

내외비 노트 등 메들리 브랜드 by 론진, 시안, 민트, 쉐어하우스, 코오, 리넨 하우스, 샵하우스, 쉐어하우스.



**더 론진 헤리티지 클래식  
크로노그래프 1946**

인정받지 못하는 지름 40mm의 라운드형 스틸 케이스와 살바 다이얼, 블루 스틸 핸즈, 그리고 패턴링 처리한 블랙 아라비아숫자가 만났다. 3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9시 방향에 30분 카운터를 디스플레이했으며 칼라버 L886로 구동해 54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3bar 방수가 가능하다. 블랙 가죽 스트랩과 매치했다. 4백만원 론진.

**하바나 프레임 브라운 렌즈  
선글라스 LG0001H5453G**

샤이니 소프트 블루톤 하바나 템플과 그라데이션 브라운 자이스 렌즈를 매치한 라운드형 선글라스 45만원 론진.



**더 론진 1832**

숫자 1832는 론진이 창립된 연도. 시간 측정이 중요하던 그 시절 개수공장으로 생산한 론진 시계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미학적 코드를 계승한 칼라버이다. 스틸 케이스의 지름은 40mm이며, 여러 층으로 반사 방지 코팅 처리한 스크래치 방지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다이얼을 보호한다. 오토매틱 칼라버 L899로 구동하며, 64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2백90만원 론진.

**블루 프레임 스모크 렌즈  
선글라스 LG0002H5890D**

샤이니 질라돔 및 매트 블랙 에이프 템플에 폴라 그라데이션 스모크 자이스 렌즈를 매치한 스퀘어형 선글라스 60만원 론진.





**론진 스피릿**

지름 42mm의 라운드형 스틸 케이스에 매트 블랙 다이얼을 매치했다. 시, 분, 날짜 확인 기능 및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3시 방향에 30분 카운터, 6시 방향에 12시간 카운터를 갖추었다. 칼리버 L688.4를 탑재했고, 6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0bar 방수가 가능하다. 4백10만원 론진.



모델: 김민준, 스타일링: 김민준, 헤어: 김민준, 메이크업: 김민준, 사진: 김민준, 장소: 김민준, 의류: 김민준, 액세서리: 김민준, 편집: 김민준, 디자인: 김민준, 레이아웃: 김민준, 인쇄: 김민준, 유통: 김민준, 판매처: 김민준, 문의처: 김민준, 고객센터: 김민준, 웹사이트: 김민준, 소셜미디어: 김민준, 이메일: 김민준, 전화번호: 김민준, 주소: 김민준, 회사명: 김민준, 대표이사: 김민준, 법인등록번호: 김민준, 사업자등록번호: 김민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김민준, 개인정보처리방침: 김민준, 이용약관: 김민준, 약관: 김민준, 환불정책: 김민준, 배송정책: 김민준, 고객센터: 김민준, 웹사이트: 김민준, 소셜미디어: 김민준, 이메일: 김민준, 전화번호: 김민준, 주소: 김민준, 회사명: 김민준, 대표이사: 김민준, 법인등록번호: 김민준, 사업자등록번호: 김민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김민준, 개인정보처리방침: 김민준, 이용약관: 김민준, 약관: 김민준, 환불정책: 김민준, 배송정책: 김민준

**하이드로 콘퀘스트**

기술적 혁신과 무이완을 결합한 하이 퍼포먼스 타원피스를 찾는 이들을 위한 시계. 매트한 블랙 세라믹 다이얼에 실버 폴리싱 핸즈를 매치했고, 러버 스트랩이 완성한다. 케이스 지름은 43mm, 시, 분, 초 및 날짜를 표시하며 30bar 방수가 가능하다. 5백만원 론진.

**도금 프레임 로빅스 렌즈**

선글라스 LG0005H5902L 매트 블랙 및 사니 엔듀라 골드 템플에 자이스 렌즈 로빅스를 매치한 에디션에 더 선글라스 59만원 론진.



모델: 김민준, 스타일링: 김민준, 헤어: 김민준, 메이크업: 김민준, 사진: 김민준, 장소: 김민준, 의류: 김민준, 액세서리: 김민준, 편집: 김민준, 디자인: 김민준, 레이아웃: 김민준, 인쇄: 김민준, 유통: 김민준, 판매처: 김민준, 문의처: 김민준, 고객센터: 김민준, 웹사이트: 김민준, 소셜미디어: 김민준, 이메일: 김민준, 전화번호: 김민준, 주소: 김민준, 회사명: 김민준, 대표이사: 김민준, 법인등록번호: 김민준, 사업자등록번호: 김민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김민준, 개인정보처리방침: 김민준, 이용약관: 김민준, 약관: 김민준, 환불정책: 김민준, 배송정책: 김민준





**론진 헤리티지 1945**  
 초창기부터 론진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준 선구자적인 장신에 경의를 표하는 컬렉션. 완벽한 라운드를 이루는 스틸 케이스는 지름이 40mm이며, 두께는 12mm다. 파인팅 처리한 이더리아숫자 및 인덱스와 블루 스틸 핸즈를 매치했고, 42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오토매틱 칼리버 L609를 장착했다. 시, 분, 그리고 6시 방향 스물 세컨즈로 초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티치한 느낌의 가죽 스트랩을 더했다. 2백40만원 론진.

**팔라듐 프레임 스모크 렌즈 선글라스 LG0005H5916C**  
 사야니 팔라듐 및 사야니 엔듀라 골드 템플에 스모크 렌즈를 매치한 에어비이어 선글라스 59만원 론진.

이탈리아의 네트 보르노.

내셔널 시계와 부속 주문 시 별도 배송료 by 10 프로세스 코도.

**더 론진 마스터 컬렉션**  
 2005년에 출시한 론진 마스터 컬렉션은 브랜드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시계라 평가받는다. 선웨이 블루 다이얼에 실버 플라싱 핸즈를 매치했고 가죽 스트랩을 달았다. 시, 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60초 중앙 핸즈를 비롯해 3시 방향에 스물 세컨즈, 9시 방향에 30분 카운터가 위치한다. L889 칼리버로 구동한다. 3백70만원 론진.

**틀도이즈 프레임 그린 렌즈 선글라스 LG0006H5752N**  
 사야니 다크 하바나 템플에 그린 자이스 렌즈를 매치한 라운드형 선글라스 45만원 론진.

론진 02-3479-1940

헤어 양해경  
 메이크업 배경란  
 스타일리스트 정윤기, 김혜정 (intrend)  
 어시스턴트 김신혜, 강도현 (intrend)  
 에디터 정라윤





AMELIA EARHART



PAUL-ÉMILE VICTOR



# the pioneer spi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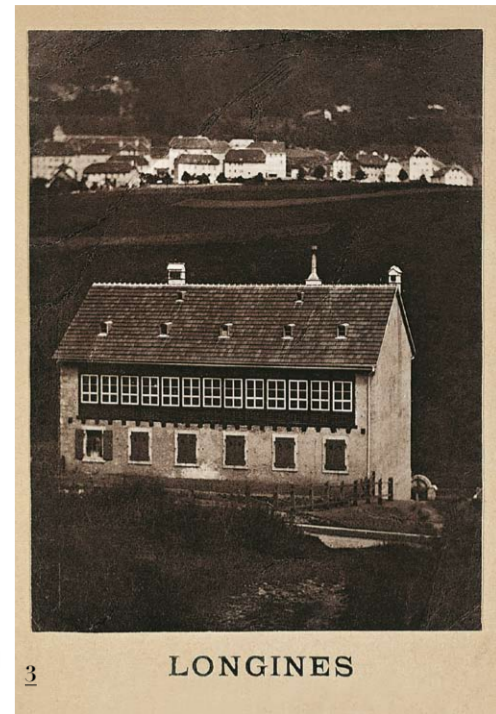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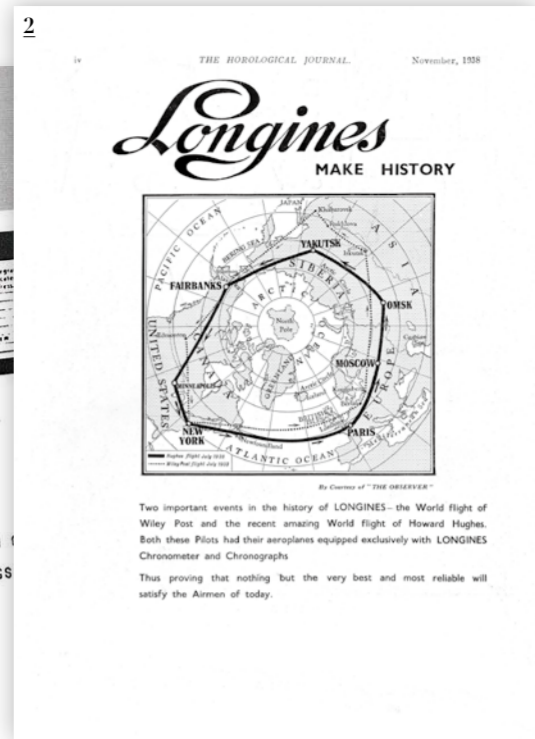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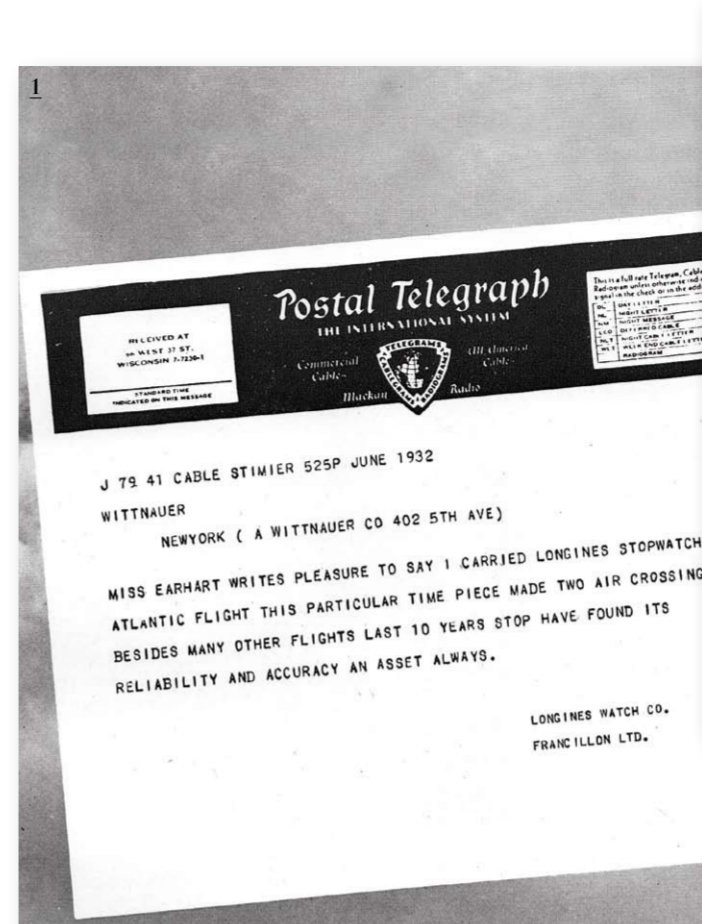
불과 80여 년 전만 해도 인간에게 하늘은 미지의 세계였다. 론진은 선구자들이 하늘을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파일럿 위치를 제작해, 탐험가들의 손목에서 매 순간을 함께했다. 현대 파일럿 위치의 시초라 해도 과언이 아닌 깊고 풍부한 역사와 선구자들의 개척 정신을 잇는 스피릿 컬렉션에는 생생한 감동이 담겨 있다. 역사에 같이 남을 업적에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겐 용기를 주는 스피릿 컬렉션.



HOWARD HUGHES



ELINOR SMITH



LONGINES

1832년 스위스 상티미에에서 탄생한 론진. 지난 1백90년간 이들이 이뤄낸 역사와 유산, 그리고 스토리의 힘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1878년 최초로 크로노그래프를 제작했고, 1900년에는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칼리버 21.59 크로노미터를 장착한 '라 르노메로 그랑프 리를' 수상해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1927년에는 찰스 린드버그와 함께 '진짜 파일럿 위치'를 고안했고, 고도의 정밀한 시간 측정 기술로 1881년 뉴욕 경마 경기와 종합마장술 경기, 마라톤 레이싱, 알파인, 스키, 양궁 등 세계적 스포츠 전반에 걸쳐 1백40년 이상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하며 인간의 도전과 함께해왔다.

### 탐험가들의 손목에서 발현한 공중 정복

스피릿 컬렉션은 선구자들의 개척 정신을 잇는 동시에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정복할 때 의지했던 론진 타임피스에서 영감을 받아 재탄생했다. 론진 파일럿 위치의 시초는 약 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7년 무착륙 단독 비행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전설적인 인물, 찰스 린드버그의 손목에 함께했던 최초의 항법 시계인 린드버그 아이위 앵글이 그 주인공이다. 이 시계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위도와 경도를 계산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다이얼을 비행기 계기판과 비슷한 각도로 기울여 비행사가 쉽게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에어비이션 타임피스를 비롯해 정확성, 견고성,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유수의 파일럿 위치로 선구적 업적을 남겼다.

육·해·공을 가르는 수많은 탐험가들이 기록적인 비행을 하는 동안 론진 위치는 늘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동했다. 탐험가들은 론진 시계를 신뢰하며 미지의 영역을 향해 예측할 수 없는 극심한 기후에 맞서 대해를 향해하고, 새로운 항공로를 열어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론진 시계의 위상은 이들이 남긴 일지가 뒷받침한다.

1930년 엘리너 스미스(Elinor Smith)는 "론진 위치가 항상 완벽히 작동했다"며 고도 8,357m 비행 신기록을 보고했다. 이후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시도한 그녀는 산소통에 굶어 가서 산소가 새어나가고, 꺼진 엔진의 연료관이 얼어 항공기가 고장 나며 급강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녀는 순간 의식을 잃었고, 약 7,315m 자유낙하 후 가까스로 무



1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론진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2 허워드 휴즈의 비행 소식을 전한 론진 캠페인. 3 1900년대 론진 초기 매뉴팩처 모습. 4 론진은 1900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라 르노메 모달로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5 파일럿 위치의 시초가 된 론진 에어비이션 A7. 6 상세한 세공 기법으로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하는 라 르노메 위치. 칼리버 51.59 크로노미터로 구동된다. 7 론진이란 이름으로 내걸고 첫선을 보인 마일스톤 위치.







1

명을 위해 극도로 얇은 고리인 미세한 실리콘 헤어 스프링을 장착했다. 부식이나 에이징에서 자유로운 이 소재는 충격에 강하고, 자성이나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밸런스 휠에 완벽한 동력을 지원한다. 손목에서 위치가 돌아가도 이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진동해 정밀성에 기여한다. 스피릿 컬렉션은 3헨즈 캘린더 모델과 크로노그래프,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이며, 각각 64시간과 6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우아함이 깃든 미학적 가치**

역사와 혁신의 연결체로서 스피릿 컬렉션은 현대적 미학 코드를 겸비한 수작이다. 오버사이즈 크라운, 플랜지, 크리스털 글라스 둘레의 뚜렷한 층, 야광 물질을 입힌 바톤 핸즈는 모두 선구적인 비행 기록을 세우던 시대의 스타일 요소를 담아 흐름에 맞게 변모해왔다. 계단형 베젤은 견고성과 품질 면에서뿐 아니라 컨템퍼러리 감성의 다이얼과 심미적인 조화를 이룬다. 양면에 여러 층으로 반사 방지 코팅 처리한 사파이어 돔 글라스는 마치 시계에 글라스가 없는 것처럼 매끈한 외관을 자랑한다. 글러브를 착용하고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오버사이즈 와인딩 크라운과 시인성이 뛰어난 숫자 인덱스는 항해자의 관점에서 디자인되었다. 핸즈와 인덱스, 그리고 플랜지와 아워 서클 사이 시간을 알리는 다이아몬드 형태까지 모두 슈퍼 루미노바로 코팅해 칠흑 같은 어둠 속 비행에서도 빛을 발한다. 3헨즈 모델은 케이스 지름 40mm와 42mm, 크로노그래프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모델은 케이스 지름 42mm 버전으로 준비했다. 각각 매트 블랙, 그레이드 실버, 선레이 블루 등 세 가지 다이얼을 적용했다. 모든 다이얼에는 5개의 별을 새겨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고, 스틸 브레이슬릿과 브라운, 다크 브라운, 블루 가죽 스트랩은 다이얼 컬러와 앙상블을 이룬다. 프리미엄 버전에는 별도의 톨 없이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메탈 브레이슬릿을 비롯해 레더 스트랩과 레더 나토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다. 케이스 1개로 세 가지 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를 배려한 것. 6개의 스크루로 고정된 인그레이빙 케이스 백이 컬렉션의 완성도를 높인다. 문의 02-3479-1940 **에디터 어쥘리**



1 매트 블랙 다이얼, 실버 샌드 핸즈와 인덱스, 짙은 브라운 가죽 스트랩이 아우라진 모델. 2 선레이 블루 다이얼과 매끈한 스틸 브레이슬릿의 조합이 돋보이는 론진 스피릿 프레시티지 에디션. 3 COSC 인증받은 칼리버 L888.4로 구동하는 고정밀 워터로 64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4 케이스 백에는 개척자 정신을 기리는 앵글링을 인그레이빙해 상징성을 더했다. 5 어떤 속이나 잘 어울리는 단정한 외관이 특징인 스피릿 컬렉션. 6 다양한 컬러 다이얼과 스트랩의 조합으로 구상한 스피릿 컬렉션. 사진은 실버 그레이드 다이얼과 조화를 이루는 옅은 브라운 가죽 스트랩 버전이다. 7 인덱스와 시곗바늘, 그리고 플랜지와 아워 서클 사이 시간을 알리는 다이아몬드 형태에도 발광 물질을 입혀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히 착륙했다. 열흘 후 재도전을 감행한 그녀는 론진 위치를 믿고 더 높이 비행해 9,929m의 신기록을 세운다. 첫 단독 비행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Amelia Earhart)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이룩한 지 2시간 만에 항공기 날개에 얼음이 얼며 기계적 결합이 생겼지만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도착 예정지인 파리 대신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의 작은 마을 켈모어에 착륙했다. 내비게이션 톨로서 론진 크로노그래프는 총 14시간 56분이라는 그녀의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사로 알려진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는 직접 디자인한 항공기로 세계 일주에 나섰다. 단 3일 19시간 14분으로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 어두운 밤, 암흑에 둘러싸인 망망대해를 횡단하면서도 그는 론진의 아스트로내비게이션 전문 항법 위치 크로노미터를 신뢰했다. 1936년 극지방을 연구하기 시작한 폴-에밀 빅터(Paul-Émile Victor)는 그린란드 거대 빙원을 횡단할 당시 착용했던 론진 위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시계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영하 40°C를 밑도는 온도를 49일 이상 견뎌야 했을 때도 크로노미터 기능은 정확히 작동했고, 그린란드 빙원을 횡단할 당시 경도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탄탄한 역사로 무장한 선구적 기술력**

가장 영광스러운 시계(The Most Honored Watch)라는 인상적인 문구는 론진의 미국 에이전트가 홍보 캠페인에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10개 이상의 그랑프리 수상 브랜드로서 뛰어난 기술력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전설적인 선구자들은 전혀 없는 탐험의 순간에 정확성 높은 론진 시계 덕에 다

수의 모험이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파일럿 위치같이 기술적 장비에 속하는 톨 위치는 특히 성능 면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 즉 기류 때문에 기체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명료한 가독성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기후에서 시간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정확성과 항자성, 그리고 탄탄한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 스피릿 컬렉션은 고정밀 위치로 론진이 1백 9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집약한 첨단 기술을 적용해 무리익은 역량을 뽐낸다. 또 스피릿 컬렉션은 단순히 유산을 복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최초의 항법 시계를 잇는 이 모델은 명성에 걸맞게 COSC 인증을 받은 고정밀 칼리버 L.888.4와 L.688.4를 탑재했다. COSC 인증 마크는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이 다섯 가지 포지션과 세 가지 다른 온도 조건에서 15일에 걸쳐 엄격한 성능 검사에 합격한 시계에만 발급하는데, 인증에 합격한 시계의 하루 평균 오차는 겨우 +6초에 불과하다. 무브먼트에는 고도의 정확성과 긴 수



4



2



# ideal look

스위스 위치메이킹 기술력과 최고급 소재를 결합해 우아함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론진 아이웨어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더블 브리지 에어비에이터 스타일의 남성용 선글라스(LG0003H5901B), 블랙 프레임에 반사 방지 코팅 처리한 자이스 그라데이션 스모크 렌즈를 장착했다. 56만원, 사이니 소프트 블론드 허바나 프레임과 자이스 그라데이션 브라운 렌즈의 감각적인 조합이 돋보이는 헤리티지 라인 남녀 공용 선글라스(LG0001H5453G) 45만원, 클래식한 스타일의 헤리티지 라인 남성용 선글라스(LG0006H5752N), 사이니 다크 허바나 프레임과 그린 컬러의 리운드형 렌즈가 조화롭다. 45만원, 사이니 블루 에-켈 프레임에 자이스 스모크 렌즈를 장착한 스포츠 라인 남성용 선글라스(LG0002H5890D), 프레임과 템플의 연결부, 브리지 상단에 론진을 상징하는 날개 달린 모래시계 모티프의 메탈 장식을 더했다. 60만원, 모두 론진.

루이비통코리아



(위부터) 골드 도금 처리한 필라들 소재의 더블 브리지 프레임과 템플, 자이스 그린 렌즈가 아우라진 클래식한 에어비에이터 스타일의 남성용 선글라스(LG0005H5930N), 프레임과 템플 일부에 매트 블랙 컬러를 입혀 모던함을 강조한 클래식 라인 에어비에이터형 선글라스(LG0005H5902L), 실버 미러를 가미한 스모크 렌즈가 돋보이는 사이니 필라들 소재의 에어비에이터형 남성용 선글라스(LG0005H5916C) 모두 59만원 론진. 문의 02-3479-1940 에디터 **이혜미**



# modern adventurer

역사 속 개척자들이 한계 상황에서 육·해·공을 정복할 때 의지했던 론진 타임피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론진 스피릿 컬렉션은 그 배경만으로도 고도의 견고함과 정확성을 대변한다. 파일럿 위치의 전통적 특징과 모던한 미학적 코드를 집목한 디자인, 이를 뒷받침하는 최첨단 위치메이킹 기술력으로 빛어낸, 현대 모험가를 위한 우아한 타임피스, 론진 스피릿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스위스 크로노미터(COSC) 기관의 공식 인증을 획득한 셸프 와인딩 메가네컬 무브먼트 L888.4로 구동하는 론진 스피릿 크로노그래프, 매트 블랙 컬러의 다이얼 3시 방향에 30분 카운터, 6시 방향에 12시간 카운터, 9시 방향에 스톱 세컨즈가 자리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4시와 5시 사이에는 날짜창이 위치하며, 인덱스와 핸즈 모두 슈퍼 루미노바 처리해 어둠 속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자랑한다. 스틸 케이스의 지름은 42mm로 스틸 브레이슬릿을 닮았다. 4백10만원. 특유의 입체적인 질감을 지닌 실버 그레인드 다이얼이 돋보이는 론진 스피릿, 시, 분, 초, 날짜를 알리며 64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하는 COSC 인증 셸프 와인딩 메가네컬 무브먼트 L888.4를 탑재했다. 다이얼 6시 방향에 위치한 5개의 별과 'CHRONOMETER' 표시는 론진 무브먼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표시이다. 케이스 지름은 40mm다. 2백90만원. 빛이 은은하게 파져나가는 스텔이 블루 다이얼과 스틸 소재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의 조화가 세련된 모델. 특히 세틴, 폴리시드 기법으로 섬세하게 마감 처리한 링크를 세 줄로 연결한 스틸 브레이슬릿은 뛰어난 착용감을 자랑하며, 다른 스트랩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셸프 와인딩 메가네컬 무브먼트 L888.4로 구동한다. 3백만원. 모두 론진.



(위부터) 브라운 레더 스트랩 버전의 론진 스피릿 크로노그래프. 항공 시계의 요소를 녹여낸 디자인이 특징으로, 1940년대의 전형적인 세이프 구조를 차용한 케이스, 계단식 베젤, 톨니 모양의 빅 스크루 다운 크라운, 스피어 돌출 글라스 등이 돋보인다. 손목의 움직임으로 원치 않게 날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톨니 모양 스크루 다운 푸시 버튼을 장착했다. 셸프 와인딩 메가네컬 무브먼트 L888.4가 한 차의 오차도 없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가리키는 핸즈 끝에 레드 컬러 포인트를 더해 항공 시계의 유산을 계승하는 모델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4백10만원. 블루 스텔이 다이얼과 유사한 블루 컬러의 레더 스트랩을 매해 감작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한 모델. 지름 42mm의 스틸 케이스를 장착했고, 케이스 백에는 론진의 정신을 상징하는 모티브와 해당 모델을 상징하는 요소를 인그레이빙했다. 시계장 견인 5년 2백 회 진동하는 셸프 와인딩 메가네컬 무브먼트 L888.4로 구동한다. 3백만원. 가독성을 증대하는 항공 시계의 전형적인 아랍어 숫자 인덱스를 차용한 그레인드 실버 다이얼, 자연스러운 질감을 살린 밝은 브라운 컬러의 레더 스트랩이 어우러져 클래식한 유도를 드러내는 모델. 지름 40mm의 다이얼에 배치한 물린자워 아워 서클 사이 다이얼은 모티브 역시 1920~40년대에 생산된 항공 시계의 미학적 특징으로, 과거 파일럿이 디스플레이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장치다. 인덱스, 핸즈와 함께 슈퍼 루미노바 처리해 어둠 속에서도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2백90만원. 모두 론진. 문의 02-3479-1940 메타비 **이제비**



# elegance is an attitude

론진의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배우 겸 감독 정우성은 2018년부터 브랜드와 인연을 맺고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다. '우아함'이라는 공통점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만남에 이견을 제기하는 이가 있을까? 론진과 정우성은 브랜드와 홍보대사 이상의 가치를 향유하고, 서로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다.

론진은 '우아함은 에티튜드에서 비롯된다(Elegance is an Attitude)'는 슬로건으로 외형뿐 아니라 행동과 태도 등 모든 부분에서 우아함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3년 동안 론진과 함께한 앰배서더 정우성은 겸손한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품격 있는 에티튜드로 브랜드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름 석 자만으로도 만인을 설레게 하는 그를 만났다. 세심한 배려와 존중, 공간이 갖든 나지막한 목소리,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가 매 순간을 대하는 자세는 남달랐다. 씨실과 날실처럼 모든 순간이 끊임없이 이어져 존속하는 시간을 분명하고 주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정우성과 나는 14가지 이야기.



**01** 지난 3년간 론진의 앰배서더로 활약했어요. 첫 만남은 어떤가요? 론진은 깊고 풍부한 역사와 가치를 존중하는 브랜드예요. 보통 브랜드와 앰배서더는 상업적인 관계에 머물기 마련인데, 론진은 브랜드의 정신이나 철학을 여러 활동과 행사를 통해 직접 보여주고 함께하려고 노력하죠. 추구는 비전이나 가치, 시간을 공유하면서 브랜드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흥미롭고 영예로운 경험이었죠.

**02** 3년간 함께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론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모나코 글로벌 챔피언십 투어부터 홍콩 인터내셔널 레이스와 대만에서 열린 마스터 클래식 이벤트까지, 스위스 보기도 방문했고요. 론진 홍콩 인터내셔널 레이스에서는 론진 엘레강스상을 직접 시상했는데, 멋진 순간이었죠. 세계적인 챔피언십에 시



성으로 나선 건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다른 세계를 접하는 경험은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03** 한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통란하는 비결이 있으세요? 비결요? 글썽요. 서로에 대한 좋은 인식, 그리고 같이만 들어가는 견고한 관계도 있겠지만, 앰배서더로써뿐 아니라 배우로서 제 자리에서 가치를 지키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윈윈(win-win)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겠네요.

**04**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니, 각자 상황에서 최선의 가치로 소비하는 것이 슬기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씨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시간은 받아들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다가오고 차가오는 시간을 어떻게 흘러보낼지 고민하면서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죠.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죠.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역행할 수 없는 시간에 미련을 가져봐야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실수를 했다던 빨리 받아들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너무 큰 계획을 준비해도 시간이 나에게 맞춰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인지하고 즐기야 해요. 그래야 시간의 주체가 되고 주도적 인생을 살 수 있어요.

**05**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고요하게 보내는 순간입니다.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들고, 특별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제게는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06** 배우로서 28년이란 시간은 어떤가요? 현재도 그 시간은 진행 중인데 여전히 도전 의욕이 있으세요? 아직도 새롭게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운 좋게 배우라는 직업을 만났어요. 배우가 안 됐으면 무엇을 했을까, 상상해보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인생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 아닌가 싶어요. 이 직업은 이미지에 구속될 수밖에 없지만, 저는 대표 캐릭터나 특정 캐릭터에 머무르고 싶은 적이 없어요. '정우성이 왜 그런 역할을 하지?'라는 의문도 있었을 텐데, 저는 저 자신을 실용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배우라는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게 이 행운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배우로 성장하는 동안 인간 정우성도 함께 성장했죠.

**07** 이 일이 나와 잘 맞는다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연기는 끝이 없어요. 초반에는 자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구태연해지면서 방향성을 잃기도 했고, 다시 자신을 찾아 재미를 느끼다가 또다시 어려워지기도 했죠. 연기는 결국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에요. 감정 스펙트럼이 무한하다는 데



새삼스럽게 놀라기도 해요. 수많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어떤 식으로도 규정 짓기를 좋아하죠. 예를 들면 인간의 감정을 희로애락으로 나누는데, 사실 즐거움만 해도 표현의 길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남들은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순간에 어떤 이는 굉장한 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08** 배우 정우성 하면 후배들이 갖든 유머 감각을 빼놓을 수 없죠. 따뜻한 유머와 유쾌한 정서를 유지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전 웃는 걸 좋아해요. 웃음이 주는 기쁨이 아주 큼니다.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 중 하나가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웃음으로 서로에게 치유받기도 하고,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고, 벽을 낮출 수도 있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격식에 갇혀 산다고 생각하는데, 웃음은 그 경계를 허무는 힘이 있어요. 물론 진지한 자세는 좋지만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가까이 에 있을 때 매우 큰 위로를 느끼는데, 한발 물러서서 여유로운 시선을 갖고 바라보면 별일 아니라고 여겨지는 상황도 있었어요.

**09** 소신을 밝히는 데 주저함이 없는 듯 보여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선한 에너지로 승화하는 야심적인 면도 존경스럽고요. 존경스럽다니 감사합니다. 저만 갖고 있는 절대적인 소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찾아낸다고요. 인지도와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공영의 의미가 크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가까이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주저함이 없는 것은 제가 이미 충분히 받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한 일을 하는데, 일을 것이 있을거예요.

**10** 지난해인 2020년 서울에서 열린 론진 프레스 실롱에서 "연제 가장 시간이 스중하다고 느끼느냐"란 에디터의 질문에 "스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다고 생각한대. 굳이 꼽자면 한국에서 조강하다 딱딱프린 신선한 비리에 행복을 느끼는 때"라고 답변하셨어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상을 받았 습니다. 이런 재해와 영감은 어디에서 받으세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어느 것인데 귀하게 여겨져요. 크고 작은 게 없다고. 저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태어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수많은 관계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을 경계해야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1** 요즘 본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오늘 촬영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한창 준비 중인 작품이 있었어요. 촬영은 모두 마쳤고 후반 작업이죠. 반복되는 일상을 지겹게 느껴지지 않게끔, 반복에서 오는 무료함이 있었어요. 오늘같이 화보 촬영장에 나와 장난 분위기를 환기하고, 예쁜 옷 입고, 헤어, 메이크업하고 장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게 다가왔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가치 있었어요. 배우라는 직업상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죠. 기본 전환을 위해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촬영 덕분에 정돈된 마음으로 시간을 대할 수 있는 듯해요. 이런 여유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12** 평소 손목시계를 착용하시나요? 손목시계가 주는 투박하고 아날로그적인 분위기,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보면서 스스로 하루를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시계는 삶의 매 순간과 동행해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환상이 있어요. 제가 차려 시계를 이들에게 물려주면서 시계의 연속성을 이고자 하는 로망이죠. 시계에는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서를 잇는 철학적인 부분도 존재해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진보해도 클래식한 시계는 많은 남성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3** 앰배서더로서 그동안 론진의 많은 제품을 착용해봤을 텐데,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은 무엇인가요? 마스터 클래식도 즐겨 착용하고, 신제품 스피릿도 좋아해요. 사실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기보다는 패션 스타일과 상황, 장소에 따라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론진이 시계들을 자유롭게 비출 수 있는 에디션도 있는데, 시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어요. 클래식한 시계에 몇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건 좋죠.

**14** 마지막 질문이에요. 2021년 소망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현재 제작하고 있는 작품의 후반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올해 선보이는 일어요. 또 누구나 바리데트 코너-19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로워야 할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잘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에디터 야유이



1 2018년 서울 석파장에서 열린 V.H.P. 론진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앰배서더 활동을 시작한 정우성. 2 초정밀 기법이 가능한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울트라 퀴츠를 장착한 콘퀘스트 V.H.P. 클래식. 3 스위스 스타미에에 위치한 론진 본사 뮤지엄을 방문한 정우성의 모습. 4 국내 V.H.P. 론진 행사에서 론진 박물관 소장품 전시를 둘러보고 있는 정우성. 5 개척 정신을 기리는 론진 스피릿 모델. 6 지난 2018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론진 글로벌 챔피언십 투어에 참석한 정우성. 7 현대화점 판교점 리뉴얼 오픈을 기념하는 프라이빗 행사에 참석해 사인물 남기기도 했다. 8 론진 홍콩 인터내셔널 레이스에 참석해 수많은 레이스 팬과 국제 그룹 경기를 즐겼다.







THE PIONEER  
SPIRIT LIVES ON.

**LONGINES**



**5** LONGINES SPIRIT  
5-YEAR WARRANTY

Why this watch? Well, there is a silicon balance-spring that means resistance to **strong magnetic fields** and everyday shocks. Thanks to its improved accuracy and precision, it is a COSC-certified chronometer. How much do we believe in these stunning members of our new Longines Spirit Collection? We are delivering each one with a **full five-year warranty**.

론진 부티크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부산본점 대전점 · 현대백화점 판교점 · AK플라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 롯데면세점 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강남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 HDC신라면세점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 동대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점

[www.longines.com/kr](http://www.longines.com/kr)